

금강사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 개최



전국 대덕 큰스님 초청법문· 불교의식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소백산 금계리 진령굴에 자리잡은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가 새로운 불교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감록에서 밝힌 10승지 중 제일승지인 이곳은 새 천년 7년(2007년) 금계동 진령굴에서 불교의 정법을 펴 앞으로 800년간 세상을 밝게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곳으로 밝힌 곳이 이 자리다. 바로 이곳 금강사에서 9월 1일 오후 1시에 새로운 수행의 장을 여는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가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열린다.

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한 정봉 스님(법회대회장)은 혼탁한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종교지도자 육성이 현시대적 절한 요청임을 지적하고 "종교가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서고, 종교 종단을 초월하여 바른 지도자를 육성하고, 바른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한다"며 "종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받겠다"고 금강총림 금강사 건립 취지를 밝혔다.

이곳에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정봉 스님이 99년 이 터에서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된 현몽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잠선 중에 문수보살님이 찾아와 이곳에 총림을 열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부 길에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정진을 했는데 무려 9번이나 나타나 총림을 열 것을 간절하게 부탁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9년 전부터 더 뛰기 공사를 해올해 기공식을 하는 것은 3천년 이상의 수행처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금강총림 불사는 이곳에서 불사가 멈추지 않는다. 총림 불사 낙성식을 가지고 난 뒤 정봉 스님은 미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총림불사를 하고 5대양 6대주에 각 1곳씩의 총림 불사를 할 계획이다.

각 대주의 총림은 36개의 본산과 108 말사가 세워진다. 각 총림과 본산 말사들은 금강사에서와 마찬가지로 6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총림 안에는 선원, 강원, 율원을 두고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모셔 후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고, 수행자는 이

기간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침은 꼭 공부하고 싶은 수행자만을 받겠다는 의지로 각 과정에는 선지식에게 매일 같이 점검 받으면서 6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처음 입방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선원에서 대중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 이후 강원 교육을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율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선원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정신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레아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숙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림은 스님 교육 뿐만 아니라 재가자 교육도 하게 된다. 7단계로 나뉜 품계는 철저한 수행 점검에 합격한 불자들만 성도절에 단계마다 품계를 쥐 공부 과정을 명백히 밝혀 준다.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세계 최고의 진악예술단이 전통국악과 클래식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미래의 음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해 만든 '프론티어'를 시작으로 본행사로 이어진다. 본 행사는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제2부 불국토의 향연, 제3부 불국

토의 향기로 법회가 펼쳐진다.

제1부는 어리석은 일체 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법고, 종성, 법패, 의식염불을 법회 참가자를 바라보면서 불교의식을 재현한다.

제2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깨달음을 청봉 스님의 9번의 스님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으로 승무 바라춤을 시연하고 골굴사 적운 스님 외 8명이 깨달음을 위한 수련법인 불무도를 선보인다.

제3부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그 법력으로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으로 찬불가합창단의 찬불가와 정봉 스님 외 여러 스님들이 기도 및 축원 염불로 법회에 참가한 모든 축원을 한다.

이날 법회에는 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 화상), 해초 스님(태고종 종장), 보성 스님(승광사 방장), 박근혜(한나라당 전 대표), 서형원(한나라당 전 대표), 김근태(열린우리당 전 대표), 김원웅(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춘생(전 광복회 회장), 이석복(국군예비역불자회 회장), 가수 김국환, 김흥국, 장윤정 등 1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 2007년 9월 1일(음력 7월 20)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대한불교 금강총림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경북 영주시 풍기읍)

■식전행사 : 세계 최고의 40인조 진악예술단이 펼치는 창작 불교음악 시연

■본행사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어리석은 일체의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교의식을 재현하는 장
법고/종성/법패/의식염불



제2부 불국토의향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그리고 깨달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
승무/바라춤/불무도



제3부 불국토의향원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그 법력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
찬불가/기도 및 축원 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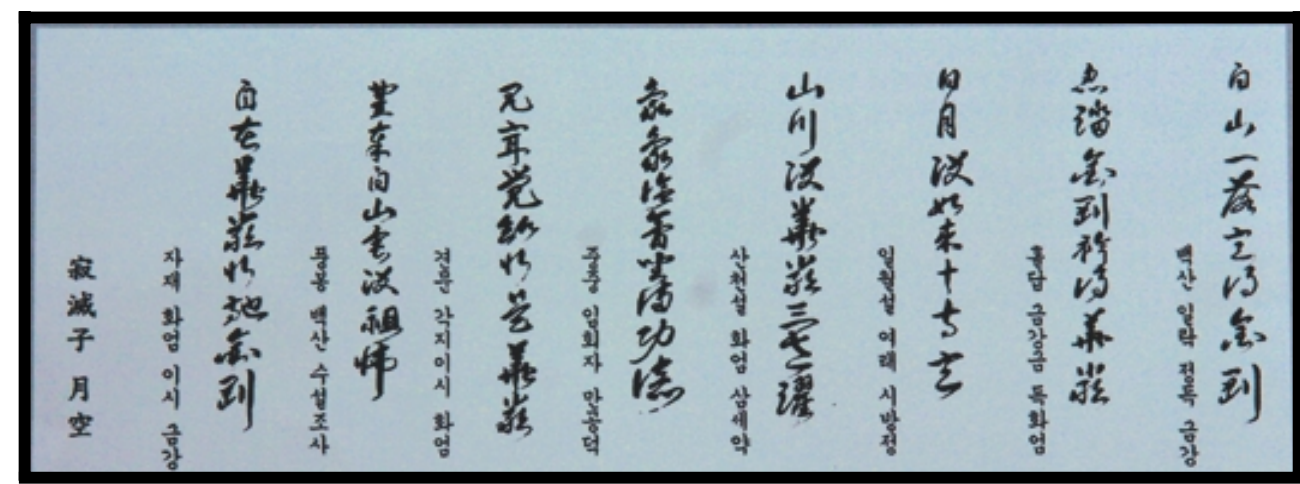


■문의 : 금강사 종무소
전화 054)0638-6546,7/FAX 054)638-6545
<http://cafe.daum.net/sobaksan>

■버스승차 :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앞(2007년 9월 1일 오전 9시 출발)
*기타 지역은 금강사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차를 보내드립니다.

■후원 : 대한민국의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총괄본부장: 도봉
■사업추진위원 : 조암, 정암, 도석, 이화, 성원, 벽봉, 광덕, 덕영, 이경희, 노철래, 김삼열, 금화행

소백산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금강사



월공 대조사 불국정토건설을 위한 대법회 친필 법어.